

재즈를 듣다 16 퓨전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쾨베르크(Arnold Schönberg)의 작품 중 ‘정화된 밤’이라는 현악 6중주곡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곡을 콘서트홀에서 두 번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생각이 스쳤다. 연주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객인 나로선 이런 ‘소음’을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주자의 공감을 끌어냈던 점에서 혁명적이었던 그의 시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하겠다. 하지만 나를 포함 대다수 관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음악을 외면했다. 무조 음악은 수학적 아름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귀를 즐겁게 하는 데는 실패한, 반쪽짜리 예술이었다고 본다.

무조 음악과 계통은 다르지만 1960년대에 재즈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른바 ‘프리 재즈(Free Jazz)’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주제와 변주(= 즉흥연주)라고 하는 기존 틀을 깬다는 점에서 혁신적이긴 했지만, 청중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에선 무조 음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처음엔 오넷 콜먼(Ornette Coleman), 에릭 돌피(Eric Dolphy), 세실 테일러(Cecil Taylor) 같은 인물이 이 흐름을 주도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 에스프레소 커피가 당기듯, 달콤한 음악에 질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간혹 프리 재즈가 생각나곤 한다. 개인적으로 세실 테일러 연주를 이따금 찾아 듣는다. 평소 자주 찾는 장르는 아니다. 존 콜트레인은 이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연주자 중 한 명이다. 이 시기 그의 연주를 한 줄로 평하자면 말 그대로 ‘돼지 먹 따는’ 소릴 냈다. ‘승천(= Ascension)’이란 음반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 '암컷들 날뛰다', '하늘의 마일즈', '조용한 방법으로'

프리 재즈가 등장하자 상당수 연주자가 당황했던 것 같다. (비밥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달리) 대부분 이 흐름에 동참하길 거부한 것이다. 이때 마치 해결사처럼 마일즈 데이비스가 또다시 등장한다. 1970년 '암컷들 날뛰다(= Bitches Brew)'란 음반을 발표했다. 재즈에 확을 섞은 이른바 퓨전 재즈(Fusion Jazz)의 효시라 평가받는다. 동시에 프리 재즈에 대한 마일즈의 답변이라는 평도 있다. 그래선지 (프리 재즈가 그러하듯) 이 음반 역시 듣기 쉬운 음악은 아니다. 한 때, 마일즈 광팬을 자처하면서 그가 만든 모든 음반을 다 좋아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던 20대 시절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나 역시 이 음반만큼은 진심으로 공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기저기서 다들 명반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의 음악에 도취해 있었던 탓에 이것도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주요 부분의 음표를 하나하나 따서 노트에 적어 놓고 분석도 해 봤다. 이만큼 했으니 나는 다 이해했다고 또 한 번 착각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을 꺼내서 듣지를 않고 잠만 재웠다. '매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예전엔 억지로나마 계속해서 들었고, '세월이 약'이란 말처럼 20여 년이 흘러 어느덧 마흔 살 즈음이 되자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로 모여 모양새를 갖추는 게 느껴졌다. 시각, 청각, 미각 등 모든 면에서 섬세함과 거리가 먼 나에겐 이 음반을 공감할 수 있기까지 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음반보다는 1968년에 나온 '하늘의 마일즈(= Miles in the Sky)'가 좀 더 듣기 편안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드러머 토니 윌리엄스(Tony Williams)의 연주가 시원하다. 이분 역시 나중에 독립해 기타리스트 존 맥러플린(John McLaughlin)과 함께 '라이프타임(Lifetime)'이란 프로그레시브 락밴드를 결성한다. 첫 음반인 '비상!(= Emergency!)'은 '암컷들 날뛰다'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암컷들 날뛰다'는 음반도 음반이지만 여기에 참여한 연주자들의 이후 활동 또한 흥미롭다. 우선 존 맥러플린은 마하비쉬누 오케스트라(Mahavishnu Orchestra)를 결성했다. '마하비쉬누'는 존이 인도 출신의 명상 수련 선생을 만나 큰 영향을 받은 뒤 개명한 이름이다. 1973년 발표한 '불새(= Birds of Fire)'가 명반으로 회자되고 있다.

키보드리스트 조 자비눌(Joe Zawinul)과 색소포니스트 웨인 쇼터(Wayne Shorter)는 웨더레포트(Weather Report)를 결성해 1977년 '거친 날씨(= Heavy Weather)'란 음반을 발표했다. 뒤늦게 합류한 천재 베이스리스트 자코 파스토리우스(Jaco Pastorius)의 역량이 합해진 명반이다.



마하비쉬누 오케스트라의 앨범 '불새'



웨더레포트의 앨범 '거친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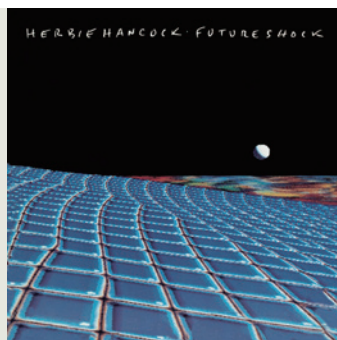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칩 코리아(Chick Corea)는 ‘암컷들 날뛰다’ 및 마일즈의 또 다른 명반인 ‘조용한 방법으로(= In a Silent Way)’에 참여했다. 1971년 리턴 투 포에버(Return to Forever)를 결성해 이듬해 발표한 동명의 음반이 퓨전 재즈 사에 남을 명반 중 하나다. 얼마 전인 2021년 2월 9일 희귀암으로 별세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허비 헨콕(Herbie Hancock) 역시 ‘조용한 방법으로’에 참여했다. 1983년에 ‘미래 충격(= Future Shock)’이란 매우 평기한 음반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락킷(Rockit)’이 수록돼 있다. 내 또래에겐 1980년 초 브레이크 댄스 열풍에 기름을 부은 듯했던 음악이라 모를 수가 없다. 그라미상 시상식에서 일렉트릭 기타처럼 어깨에 멜 수 있게 제작한 건반을 든 흑인이 동네 건달 마냥 거들먹거리며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당시엔 이분이 허비란 걸 몰랐다. 이제 질세라(?) 마일즈 데이비스 역시 1986년대에 또 하나 퓨전 재즈 걸작인 ‘투투(Tutu)’를 발표한다. 남아프리카 최초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 주교에게 헌정한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당대 최고 콕스타였던 프린스의 스타일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칩 코리아의 앨범 ‘리턴 투 포에버’

이상에서 보듯 재즈에서 처음 사용된 ‘퓨전’은 재즈에 락을 도입한 의도와 의미가 분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뭔가가 뒤섞이기만 하면 “퓨전”이라고 부르는 풍조가 생겨난 듯하다. 이리다 후대에 생겨난 재즈를 보통 ‘컨템포러리 재즈’라고도 한다. 데이브 그루신(Dave Grusin)이 이를 대표하는 뮤지션 중 한 명이다. 1967년 개봉한 영화 ‘졸업’의 음악을 담당하여 이름을 처음 알렸고, 무엇보다 1984년 발표한 ‘밤의 경계(= Night Lines)’에 수록한 ‘보사 바로크(Bossa Baroque)’란 음악이 TV 광고에 삽입돼 친숙하다. 또 그가 세운 GRP 레이블을 통해 리 릿나워(Lee Ritenour, 나에겐 ‘리 리트너’란 발음이 더 익숙하다), 얼 클루(Earl Klugh) 등이 이름을 알렸다.



허비 헨콕의 앨범 ‘미래 충격’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 ‘투투’



데이브 그루신의 앨범 ‘밤의 경계’



포플레이의 ‘포플레이’와 ‘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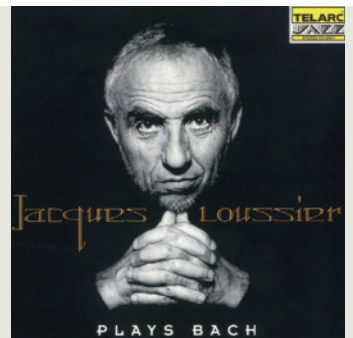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밥 제임스(Bob James)를 주축으로 4명의 명연주자가 모인 포플레이(Four Play)는 1991년 처음 결성한 이래 기타리스트만 3번 바뀌었을 뿐 같은 멤버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최장수 컨템포러리 재즈 밴드이다. 첫 음반인 ‘포플레이(Fourplay)’부터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뒤이은 ‘침대 속으로(= Between the Sheets)’, ‘요약(= Elixir)’이 모두 공전의 히트를 했다.

크로스오버(Crossover)는 퓨전과 사전적 의미는 유사하지만 재즈에선 확이 아닌 것, 그중에서 주로 유럽고전음악을 섞은 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끌로드 볼링(Claude Bolling)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바이올린과 재즈 피아노 모음곡(= Suite for Violin and Jazz Piano)’, 자끄 루씨에(Jacques Loussier) 트리오의 ‘바흐를 연주하다(= Plays Bach)’, ‘미래로 간 바흐(= Bach to the Future)’ 같은 음반이 여기에 속한다.

당연히 퓨전 재즈는 확 기타리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확 이겠으나 퓨전 재즈라고 해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음반들이 꽤 있다. 우선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가 1970년에 발표한 ‘아브락사스(Abraxas)’, 1971년 발표한 ‘산타나 III(Santana III)’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제프 벡(Jeff Beck) 역시 확 기타리스트이긴 하지만 1975년 발표한 연주곡집 ‘블로우 바이 블로우(Blow by Blow)’는 퓨전 재즈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또한 전설의 3인조 밴드였던 크림(Cream)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또한 퓨전 재즈의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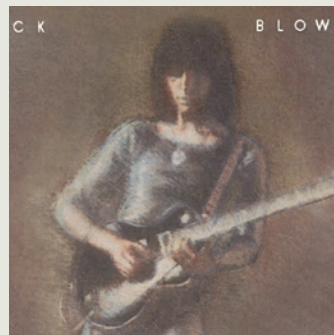
끌로드 볼링의 앨범
‘플룻 모음곡’



자끄 루씨에의 앨범
‘바흐를 연주하다’



카를로스 산타나의
앨범 ‘아브락사스’



제프 벡의 앨범
‘블로우 바이 블로우’



팻 메스니의 앨범
‘첫 번째 동그라미’



팻 메스니의 앨범 '출구로'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Pat Metheny)는 국내에서 유독 사랑받는 뮤지션이다. 그의 음악이 한국 사람 정서와 잘 맞는 부분이 있나 보다. 1980년에 '80/81'이란 음반을 발표해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대 히트 음반은 1982년 발표한 '출구로(= Offramp)'이다. 1984년에 발표한 '첫 번째 동그라미(= First Circle)' 역시 큰 인기를 끈 음반이다. 여기에 수록된 '할 수만 있다면(= If I could)'이란 곡은 그가 12살 때 웨스 몽고메리(Wes Montgomery) 연주를 듣고 느낀 기억을 담아 헌정한 곡이라고 한다. 또 국내에선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 Letter from Home)'가 라이선스로 발매돼 인기를 얻었다. 📻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
'암컷들 날뛰다', '하늘의 마일즈', '조용한 방법으로', '투투'

마하비쉬뉴 오케스트라의 앨범
'불새'



웨더레포트의 앨범
'거친 날씨'

척 코리아의 앨범
'리턴 투 포에버'

허비 핸콕의 앨범
'미래 충격'

데이브 그루신의 앨범
'밤의 경계'

포플레이의
'포플레이'



포플레이의
'묘약'

콜로드 볼링의 앨범
'플러트 모음곡'

자크 루시에의 앨범
'바호를 연주하다'

카를로스 산타나의 앨범
'아브락사스'

카를로스 산타나의 앨범
'산타나 III'



제프 벡의 앨범
'블로우 바이 블로우'

팻 메스니의 앨범
'출구로', '첫 번째 동그라미',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